

인터뷰

자연, 사람, 지형 연결해 도시에 생동감을 부여하다

판교 알파돔시티 중앙광장 랜드마크 조성 공모전 대상 수상한 이주현·김준택·김소희 씨

김혜준 기자 khj_hyejun@khu.ac.kr
박창원 기자 macpark342@khu.ac.kr

【국제】판교역 일대의 공간 디자인 개선 방안을 경쟁하는 ‘판교 알파돔 시티 중앙광장 랜드마크 조성 아이디어 공모전(공모전)’에서 우리학교 학생들이 대상을 수상했다. 작품명 ‘판교 시넵스’를 디자인한 김준택(환경조경디자인학 2016), 이주현(환경조경디자인학 2016), 김소희(환경조경디자인학 2015) 씨가 그 주인공이다. 이번 공모전을 주최한 알파돔시티자산관리(주)는 대상 수상작을 적극 활용해 2021년까지 중앙광장을 새로운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이주현 씨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수상자 명단을 보고도 믿기지 않아 확인 전화까지 했었다”고 말하며 대상 수상을 확인하던 순간의 떨림을 전했다.

졸업반인 세 사람이 한 팀이 된 것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업시간에 우연히 작업을 같이 한 것이 시작이었다. 팀워크가 좋다고 느낀 세 사람은 졸업전시회 준비까지 함께하기로 했고 졸업전시회 작품 출품을 목적으로 공모전 참여를 결심했다. 작업 시작 전 다녀온 현장답사는 아이디어 구상에 도움이 됐다. 이주현 씨는 “공모전 대상지로 나온 중앙광장을 둘러보며 유동인구가 많지만 뿔뿔한 느낌이 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주현 씨의 문제의식으로 작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과정은 순탄했다. 여느 팀과는 다르게 팀원 간 마찰이 전혀 없었다. 김준택 씨는 “역할 분담이 확실한 덕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다”고 말했다. 팀장인 김준택 씨는 렌더링, 이주현 씨는 3D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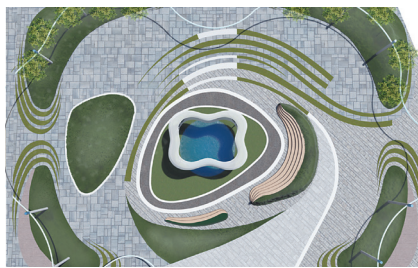


대상을 수상한 이주현(왼쪽), 김준택(가운데), 김소희(오른쪽) 씨는 “각자 잘하는 것과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 팀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

직접 설계한 공간이
실제로 구현된다고 하니
기분이 이상하고 뿌듯해요

”



수상작 ‘판교 시넵스’의 마스터 플랜이다.

래픽과 모델링, 김소희 씨는 2D 그래픽에 각각 특화된 역량을 갖고 있다. 김소희 씨는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아이디어가 확장됐다”며 “각자 자신이 잘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좋았다”고 말했다.

의견 차이 없이 진행된 작업은 좋은 아이디어를 탄생시켰고 이는 판교 시넵스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판교 시넵스는 신경세포 사이의 결합 관계인 시넵스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이다. 자연, 사람, 지형 등 공간 구성 요소를 하나로 연결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배기구와 비상계단 등 투박한 디자인의 공공시설물을 예술작품으로 느껴지도록 만들고, 전형적인 반듯한 디자

인에서 탈피해 유기적인 곡선 형태를 적용함으로써 도시 전체에 생동감을 부여했다.

미세먼지를 여과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클린포그(clean fog) 순환 시스템’,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스케치한 자연풍경을 화면에 구현하는 ‘인공지능 아트 디스플레이’, 빗물을 유입해 수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레인가든(rain garden)’ 등 다양한 기술 전략을 사용한 점도 눈에 띈다. 판교 시넵스라는 작품명을 처음 떠올렸다는 김준택 씨는 “조경이 단순히 나무 심는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준택 씨의 바람대로 판교 시넵스는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와 같은 신기

술을 접목했다는 점에서 흥미롭고 차별화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렇게 판교 시넵스는 세 사람에게 공모전 대상이라는 영예를 안겼다. 많은 시간을 들여 열심히 준비한 작품인 만큼 충실성, 예술성, 상징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수상에 성공했다. 세 사람은 “각자 잘하는 것과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 팀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대상 수상 비결을 공개했다. 또한 좋은 작품을 보면 좋은 작품이 떠오른다는 김소희 씨는 “시각적 요소와 체험적 요소가 반영된 다른 팀의 작품을 보며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김준택 씨는 “직접 설계한 공간이 실제로 구현된다고 하니 기분이 이상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세 사람은 졸업전시회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판교 시넵스 외 1점으로 졸업전시회에 참가했다. 김소희 씨는 “대학생 신분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졸업 후에는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싶다”고 말했다. 김준택 씨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동시에 공간 디자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세 사람은 후배들을 위한 솔직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주현 씨는 “심사위원이 공개된 공모전이 라면 지금까지 어떤 작업을 해왔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다”며 “공모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작품 외적으로 탐색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소희 씨는 “기업체에서 낸 공모전이라면 심사위원이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희대학교 미래인재센터
COUNCIL OF CAREER DEVELOPMENT
KING'S HIGH UNIVERSITY

2019 총학생회와 함께하는
Career Design Festival
오늘 그리는 내일의 청춘

2019년 11월 6일(수) 12:00 ~ 17:00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로비

학점, 스펙, 인턴십, 대외활동, 교내활동..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2019 KHU CDF에서 유익한 팁을 얻어보세요!

◆ 멘토존 방문 선배 ◆

분야	졸업 학과	재직 기업
대기업 생산관리&소재개발	기계공학과	기아자동차
대기업 전자&IT	전자전파공학과	포스코
대기업 R&D	컴퓨터공학과	현대오일론
대기업 광고 (미디어플래닝)	언론정보학과	LG그룹, HS에드
	문화관광콘텐츠학과	CJ그룹-메조미디어
대기업 e-커머스&영업	중국어학과	식물분야기업(블라인드)
대기업 마케팅	시각디자인과	삼성전자
대기업 금융권	중국어학과	농협은행
외국계기업 마케팅	국제경영학부	포르세코리아
외국계기업 영업	영미어학부	한국휴렛팩터드 엔터프라이즈 (HPE)
공기업 전자직군	전자전파공학과	지역난방공사
국가고시 외교관(외무사무관)	국제학과	국립외교원

◆ 푸짐한 경품이벤트 ◆

1등 에어팟 | 2개
2등 에어프로이어 | 2개
3등 카피오 미니시
4등 라인프렌즈
무선 안경 | 4개

제1회 융합학술연구 공개 세미나

〈왕양명의 생명이해 : 천지만물일체론〉
‘지구시민의식’을 향한 인식과 사유
“생명이란 무엇인가?”

정인재 명예교수 (서강대, 양명학)

心者身之主也, 而心之虛靈明覺, 即所謂本然之良知也.
夫良知即是道, 良知之在人心, 不但聖賢, 雖常人亦無不如此.
若無有物欲牽蔽, 但循著良知發用流行將去, 即無不是道.
“王陽明《傳習錄》137-165條目”
마음은 몸의 주재이며 마음의 허령명각(虛靈明覺, 신령스러운 밝음)이 이른바 본연의 양지이다.
무릇 양지가 바로 도이다. 양지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은 비단 성현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일지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만약 물욕에 이끌려 가려지지 않고, 다만 양지의 발용 유행을 따라 나아가기만 한다면 바로 이 도가 아님이 없을 것이다.

일시: 2019년 11월 7일(목) 오후 2시~5시 장소: 한의과대학 262호 강의실
주최: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한의과대학·미래문명원
주관: 후마니타스칼리지 융합학술연구세미나
문의: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961-0642 / 9311)